

노동조합의 정보 이용하기

첫 번째 마당, 컴퓨터통신 따라잡기 ②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우리는 지난 호에서 '천리안'이 제공하는 메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몇가지 명령어의 사용법(다음페이지(엔터), 목록열람(L), 상위메뉴(M), 초기메뉴(T), 종료(X))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서 알아보지 못한 명령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 컴퓨터로 달려가서 천리안에 접속해보자. 접속에 성공했다면 초기화면, 즉 [탐메뉴]가 [그림1]처럼 화면에 나타나고, 화면 아래 왼쪽으로 **정보찾기(FIND)**, **직접이동(GO)**, 기타 **(Z)** 명령어가 보일 것이다.

정보찾기(FIND)

일단 'find'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쳐 실행하면, '정보소재찾기' 방

이 [그림2]처럼 나타난다. 화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방의 이용방법을 대략 알 수 있다. 화면 아래를 보면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우선 '노동'을 입력해보자.

잠깐! 입력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 명령어의 입력이 영어로 되는지 아니면 한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화면의 맨아랫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맨아래 왼쪽에 [QWERTY자판]이 표시되어 있으면 명령어는 영어로 입력되고, [2벌식자판]이 표시되면 한글로 입력된다. 영문자판에서 한글자판으로 혹은 그 역으로 바꾸는 방법은 키보드 맨아랫줄 중간에 보이는 [한/영]키를 누르면 된다. 아니면 [한/영]키 왼쪽에 있는 옆으로 길쭉한 일명 [스

페이스바)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번식자권]을 선택한 후, '노동'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 실행하면, [그림3]이 나타난다. 어떤 방들이 있나 살펴보니, 이 란에서 이미 다뤘던 '8.노동조합정보', '9. 노무정보', '12.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한 노동관련 방들을 찾을 수 있다. 관심 있는 방에 대한 여행은 지난 호를 참고하면 별로 어려울게 없을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림3]에서 [답메뉴]나 [그림2]로 가려고 'T'나 'M'을 입력하면 '그런 명령어는 없습니다'라는 엉뚱한 메시지만 나온다. 이럴 때는 [엔터]키를 몇번 두드리면 다시 [답메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림1] 답메뉴



[그림2] 점프소재찾기



[그림3] 노동정보 관련방

직접이동(GO)

지난 호에서 우리는 '노무정보' 방에 이르기 위해 [탐메뉴]로부터 3단계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다. 'GO' 명령어는 이런 수고를 덜어준다. [탐메뉴]를 비롯한 어느 화면 어느 방에서든지 'GO' 명령어를 이용하면 원하는 방으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

우선 [그림3]를 자세히 보면, 윗줄 중간에 'GO명'이 있고 밑으로 'MEDIX', 'LGE'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리스트를 자세히 보면 '7.노동자신문'의 'GO명'은 'NOSIN', '8.노동조합정보'는 'TU', '12.매일노동뉴스'는 'MNEWS'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처럼 'go mnews'를 입력하여 [Enter]키를 치면, '매일노동뉴스' 방을 방문할 수 있다.

'GO'는 어느 방, 어느 화면에서나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명령어이다. 물론 방문할 방의 'GO xxx'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타(Z)

이 명령어는 천리안 서비스를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명령어이다. 'Z'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그림5]가 화면에 나타난다.

- H를 치면 현재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목록이 나오고,
- USE를 치면 내가 사용한 천리안 서비스 이용현황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PF를 치고 내가 아는 혹은 관심을 둔 이용자번호, 즉 ID를 입력하면 관련자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 TEL을 치면 천리안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를 볼 수 있다.

이 명령어들은 어느 방, 어느 단계에서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이용의 시원한 지름길

컴퓨터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명령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2회에 걸쳐 살펴본 명령어, 즉 M, T, X, L (지난 호 참조)과 FIND, GO, Z는 컴퓨터 통신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이 명령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컴퓨터 통신 배우기의 절반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명령어들은 '컨리안 온 플론 하이텔, 나우누리' 등 다른 컴퓨터 통신 서비스에서도 그 방법과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익히두면 대단히 편리하다. 뭐니 뭐니해도 실천과 실습만큼 확실한 학습방법은 없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요즘, 컴퓨터 통신으로 더위를 식혀보는 어떨까!

다음 호에는 원래 이번 호에 배워 보기로 했던 것, 즉 컴퓨터 통신에서 찾은 정보를 내 컴퓨터로 가져와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한글프로그램에서 불러내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즐겁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



그림4 GO 명령어의 실행



그림5 Z 명령어의 실행